

병아리 수요·공급, 블럭화 현상 나타난다

강 용 식

본회 천안육계분회장

최근 육계산업은 구조적 변화가 일고 있다. 구조적 변화는 계열화다. 이러한 계열화는 금년에 양적 팽창이 가장 컸다. 육계사육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팽창하고 있는 계열화로 육계사육자는 앞날 계열화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상상하며 닭을 사육하는 불확실성의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88년 하반기 이후 계속된 호경기를 만끽하며 맞이한 금년 육계경기는 연초부터 5월까지 1천원을 상회하는 호경기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복경기를 제외하고 생산비 마저 건지기 어려운 선에서 육계시세가 형성되어 미련만 남긴 한해였다.

전반기에 육계경기가 좋았으나 4백원을 넘어 5백원에도 구하기 어려웠던 병아리, 10% 폐사가 보통이었던 생산성 저하로 kg당 생산비가 9백원을 넘기게 되었다. 그래도 생산비 이상에서 출하할 수 있어 다행이었으나 일반사육자는 병아리를 구하지 못해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격이었

다.

계속된 육계업 호황으로 전국적으로 육계사육 시설이 2배 이상 급증하였다. 기존사육자들이 직업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축적이 부족하여 신규업자가 쉽사리 사육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과 적은 자본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이라 분석된다.

신규업자의 대량진입은 병아리 수요처 확대로 직결되었다. 육계가격에 의해 결정되었던 병아리 가격이 금년에는 육계가격이 급락해도 병아리가격은 움직이지 않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다. 더구나 계열화업체 등의 계획생산 증가로 전체 시장의 20~30%가 병아리 수요 블럭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농가 2배 증가는 실제 병아리 수요처 3배 증가의 효과를 나타내어 병아리가격을 더 단단하게 묶어 주었다.

또 불황을 경험하지 않은 신규업자는 무조건 입추하고 보자는 분위기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화장의 병아리생산 가동율은 최대로 증

가하였다.

금년 중반기의 경기는 5, 6월 2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는 경기를 보였다. 월간양계 육계전망 그래프에서도 곡선이 아닌 2개월 하락 직선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도 금년 역시 복경기라는 육계업 전통은 지역하지 않고 찾아와 복중에는 1천원대의 좋은 시세를 유지해주었다.

모두가 우려했던대로 말복이후 급락한 육계시세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하반기가 계속되고 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이제 육계경기는 장기침체의 늪속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전술한바와 같이 기반이 단단하게 굳혀진 병아리가격을 배경으로 부화장은 생산능력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금년 종계입식이 전년보다 35%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를 우려하기 보다는 C. C 병아리 품귀현상 처럼 P. S 병아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무계획적으로 입식된 종계로부터 생산될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쉽게 추산할 수 있어 91년 병아리가격은 물론 육계가격 폭락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결국 연말연시 성수기 육계가격이 내년도 육계경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호황 끝, 불황 시작”이 예상되나 반드시 육계업자의 상황이 어려운 방향으로만 전개되며 암담한 '91년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육계사육자의 자세에 따라서는 2년여의 호황때보다 더 쉬운 육계업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병아리가격 하락은 자료상으로 이미 확인할 수 있으며, 병아리를 구하는데도 육계사육자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라 전망된다.

쉽게 병아리를 구할 수 있어 경영이 용이로와질 수 있다. 또 4백원대에서 생산된 병아리와 1백원, 2백원대에서 생산되는 병아리 생산량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수치상으로 '91년 육계경기는 암울해 보이지만



**모두가 우려했던대로
말복 이후 급락한 육계시세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하반기가 계속되고 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이제 육계경기는 장기침체의
늪속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2백원대 병아리를 사육자의 계획에 의해 쉽게 입추하여 적정한 시세로 출하하여 경영의 안정을 꾀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는 불가능한 논리가 아니라 육계인 모두 마음을 비운다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상황이 되리라 전망한다.

소비측면은 그동안 소비를 주도해왔던 양념통닭의 인식이 소비자에게 더이상 신선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 외식업체의 난립으로 양념통닭의 이미지를 흐리며 부실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있다. 또 소비의 최일선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체인점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부실외식업체의 정비기간이 이제부터 시작되리라 예상된다.

제품개발 능력을 가진 몇몇 외식업체는 신상품을 개발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우량업체이어서 아직까지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념통닭의 매출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신제품을 선보여 새로운 소비창출을 유도하리라 기대된다. 기대와 같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급

격한 소비감소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육계산업은 계열화 열풍속에 휩싸여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계열화의 필요성을 논하기 보다 계열화업체가 일반사육자 보다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이는 수입개방 이전에 지금과 같이 계속 육계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열화업체에 경쟁에서 뒤져 계약사육만이 육계업을 계속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을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계열화 생산이 일반생산 보다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육계인은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계열화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나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모대학 교수의 연구발표를 보면 육계생산 단계에서 21~27%, 최종소비재 상태로 51~55% 까지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이 논문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으며, 수치상 많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 생산비 절감폭을 더욱 알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생산비 발표

로 육계사육자의 혼란은 물론 향후 육계산업 진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수입개방이 가까와오에 따라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단계적 발전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육계산업의 주인인 우리 사육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를 올바르게 고쳐잡기 위해 생산자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여러곳에서 생산자들이 모여 계열주체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계열주체가 생산자를 위한 계열화가 발전되도록 이끌어가리라 기대한다.

육계생산자들은 단기적인 육계경기뿐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어떻게 이끄느냐가 향후 육계인의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1년은 세계의 10년이라는 말처럼 금년 1년은 과거 10년 만큼 많이 변화하였다. '91년도 역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생산자의 관심과 참여도에 따라 육계산업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육용계 생산잠재력

(단위 : 천수)

구분	'85	'86	'87	'88	'89	'90	'91
1	15,343	15,852	16,208	21,597	22,532	20,471	26,206
2	16,009	16,853	17,088	22,637	23,373	20,983	27,866
3	16,721	17,520	17,931	23,710	24,283	22,136	30,357
4	17,059	18,100	19,003	24,983	25,258	23,597	32,891
5	16,981	18,634	19,854	25,471	25,477	24,435	34,716
6	16,226	18,453	20,108	24,665	22,321	24,914	
7	15,268	17,300	19,050	22,020	23,191	24,509	
8	13,956	15,649	17,962	21,192	20,542	23,010	
9	12,970	15,070	17,612	19,813	18,845	21,919	
10	12,970	15,121	17,946	19,618	19,087	22,117	
11	13,765	15,596	17,162	20,824	20,072	23,615	
12	14,760	15,990	20,337	20,082	20,125	23,052	
계	182,029	216,000	220,261	266,614	265,106	267,758	

표 2. 육용 P.S입식현황

(단위 : 수수)

구분	'86	'87	'88	'89	'90
1	74,900	107,500	131,000	85,386	111,203
2	157,600	160,300	177,891	201,500	242,823
3	154,360	195,000	297,766	278,935	306,430
4	137,300	222,100	267,400	235,998	307,645
5	149,500	240,250	198,910	222,005	319,241
6	110,400	202,300	232,000	190,080	284,700
7	211,450	280,726	297,510	259,769	379,672
8	147,400	269,160	189,250	281,573	424,440
9	172,100	230,930	240,257	246,765	360,178
10	165,600	205,360	210,762	227,100	352,098
11	99,840	103,530	111,278	209,250	
12	89,300	126,508	108,518	184,434	
계	1,525,750	1,669,750	2,325,654	2,463,542	2,561,794